

# 미래의 세계를 대비하는 책

林煥燮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오늘날의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가 너무 빠르고 중대하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잘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승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칫 낙오자가 되고 만다. 냉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몇해 사이에 일어난 변화들은 분명히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공산주의가 몰락하였고 그에 따라 2차대전후의 세계질서를 규정지어왔던 동서진영간의 냉전체제는 이제 거의 완전한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소련의 연방체제가 해체되었고 동서독은 통일되었으며 미국의 세기도 끝나가고 있다. 세계의 경제는 유럽권, 미주권, 아시아권 등으로 블록화하고 있으며 무역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걸프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자기술전쟁의 양상을 보여주었고 민족간, 인종간의 분규와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개편과정에서 한국은 통일을 성취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지만, 블록화되는 경제질서와 높아지는 무역장벽, 그리고 심화되는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의 앞날에 험난한 시련을 예상케 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승자가 되어야 하고 통일된 조국의 번영을 성취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인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미래를 공부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허황한 장미빛의 미래관에 현혹되어서도 안되지만 잿빛의 암울한 미래관에 빠져 한탄만 하고 있어서도 안된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미래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마치 산업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어 유토피아를 실현해줄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미래학자들은 그와는 반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재앙과 종말을 가져다 줄 것처럼 비관적인 미래예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에 관한 지식은 보다 균형되고 객관적이며 심층적인 지식이다. 선동적인 지식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관해 깊이있고 균형있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래는 우리에게 환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예언의 세계가 되어서도 안된다. 미래는 우리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하나의 현실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일 뿐이다. 그와 같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응전을 승리로 이끌어갈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정책수립가들과 지식인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미래연구서들을 읽고 토론하고 미래에 대비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연구와 미래에 대비하는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가간, 지역간에 더욱 심해질 무역경쟁에 대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등으로 힘을 기르고 비축해 나아가는 한편으로 세계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해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미래에 대비하는 국민들은 나라안의 작은 문제들이나 작은 이해관계의 갈등 때문에 국력을 낭비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래의 도전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미래의 세계질서 속에서 승자가 되고 강자가 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많은 책을 펼쳐 내야 하며 더 많이 읽고 공부하고 토론해서 미래의 도전에 착실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    |   |
|----------|----|---|
| 뉴스       | 2  | 제45차 출판협회 정기총회·외  |
| 표지인물     | 4  | 「한국의 민속춤」 펴낸 정병호교수  |
| 에세이특집    | 6  | 신춘문에 당선자들의 습작기 독서체험기<br>소울석 / 최인자 / 김애영 / 이희중<br>안중국 / 반철환 / 김문기 / 노경실<br>김승길 / 조재영 |
| 서평       | 12 | 이덕화 「김남천 연구」 — 임현영<br>황폐강 외 「양주동 연구」 — 황종연  |
|          | 13 |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 정수복<br>R. H. 버크 「반트러스트의 모순」 — 이승철                                  |
|          | 14 | 권원기 「국제기술이전론」 — 김환석<br>가노우 요시미츠 「중국의학과 철학」 — 김수중                                    |
|          | 15 |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정호<br>하재봉 「콜렉트 콜」 — 하우백                                      |
| 확대서평     | 16 | 또하나의 문화 「새로 쓰는 성 이야기」 — 정진경   |
| 초점       | 17 | 서점가에 자리펴고 나앉은 '역술도서'  |
| 연재기획     | 18 | 책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상캠페인 ②  |
| 출판화제     | 20 | 非核化시대의 핵문제 관련도서 러시  |
|          | 21 | 제도권 공간서 출판된 운동권 저술  |
| 이 책 그 사람 | 22 | 「미술연감」 11권째 만든 이재운씨<br>「생물에세이」 펴낸 윤소영씨  |
|          | 23 | 「두 귀를 씻고 듣는 이야기」 낸 황폐강교수<br>「남경대학살」 펴낸 박옥상씨   |
| 화제의 책    | 24 | 잡지 및 무크, 전문화 차별화된다  |
|          | 25 | 고급독자들 주목 끄는 '입장' 총서   |
| 해외출판     | 26 | 美 잔혹소설 둘러싼 獨 출판계의 논란 — 이희재  |
| 세계의 책    | 28 | 이라크와 CNN의 밀월관계 추적·외   |
|          | 30 | 독자서평  |
|          | 32 | 신간안내  |
|          | 40 | 200자 안내   |
|          | 48 |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 안내   |
|          |    | 표지사진 / 김흥진  |